

# 책과 미술, 그 상상력의 행복한 만남

## ‘책 속의 미술 미술 속의 책’전 지상전시

전통적인 정보매체의 중심으로서 책의 위상은 이제 영상 시대를 맞아 나날이 주변부로 밀려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미술계도 마찬가지. 더이상 책을 읽지 않으려는 대중은 더이상 전시장을 찾으려 하지 않는 것이다.

‘책의해’를 맞아 3월 12일부터 4월 1일까지 갤러리 아트빔에서 열리고 있는 ‘책 속의 미술, 미술 속의 책’전은 시각예술이라는 렌즈를 통해 굴절시킨 갖가지 책의 모습들을 ‘새삼스럽게’ 보여줌으로써 책과 미술의 고유한 의미를 문화적 차원에서 고양시키고 있다. 또한 현대미술에서 눈에 띄게 소원해진 책과 미술과의 관계를 다시 밀착시켜보자는 의도도 이번 전시회에 남다른 시선을 보내게 한다.

회색화된 문명을 책을 통해 상징하고 있는 고영훈씨의

평면작업을 비롯해, 의자라는 단일소재에 몰두해온 조성목씨가 책을 매개로 새롭게 시도한 ‘의자시리즈’, 퍼포먼스와 설치작업을 펼쳐온 심영철씨가 네온과 시계 등 현대적 소재를 사용해 책의 의미를 부각시킨 설치물, 책을 잘라내거나 못질을 하는 등 책에 ‘폭력’을 가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책의 소중함을 보여주는 이홍수씨의 조각물 등 다양하고 실험적인 설치작업을 선보이고 있는 이 전시회에는 이밖에도 박불똥, 이상윤, 이순중, 홍성도, 홍수자씨 등 주목받는 작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책이라는 사진적이고 보수적이기까지 한 주제를 가장 진보적이고 첨단적 시각을 가진 미술인들이 과연 어떻게 작품화하는가라는 점에서도 흥미를 끌 만한 전시회다.

- ① 조성목, 메신저 93-창가에서, 100×40×40cm
- ② 이홍수, 무제, 책
- ③ 고영훈, 죽음을 넘어서, 168×120cm, 캔버스에 아크릴
- ④ 홍수자, 있음들 아니있음, 80×65×50cm, 혼합재료
- ⑤ 이상윤, 册中册, 87×176×13cm, 스텐레스 스틸 책·볼트 너트·사진
- ⑥ 심영철, 예수는 당신을 사랑한다, 성경책·네온·시계



1

